



강선미

산업단지정책해커톤 참가자

- 완주군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팀장
- 전 전주MBC 작가

밤이 되면 짙은 어둠이 깔려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던 산업단지를 바꾸기 위해, 평범한 지역 주민이었던 강선미 팀장이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해커톤의 치열한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들이 뭉친 '시브릿지' 팀은 야간 퇴근길 근로자들이 겪는 불안과 고립감에 깊이 공감하며, 발밑을 밝히는 자가발전 '은하수 로드'부터 안심 서들과 스마트 러닝 코스까지 산단의 밤을 빛으로 채우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공포의 공간이었던 산단의 밤을 누구나 안심하고 걷고 뛰며 상생할 수 있는 찬란한 기회의 무대로 탈바꿈시킨 이들의 눈부신 상상력은, 진정한 정책 혁신이 결국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실한 목소리에서 시작됨을 아름답게 증명해 냈습니다.

무서워서 잘 안 가던 곳에서, 살고 싶은 곳을 상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 참가자, 강선미 인터뷰

“설렘 반, 걱정 반
— 저질 체력이 걱정됐어요”

Q. 처음 이 해커톤에 참여한다고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A.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창원, 구미에서 오시는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은 설렜고, 해커톤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비교적 빠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워낙 저질 체력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나의 의견이 하나의 정책이 되고 산단이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컸어요!

“무서워서 잘 안 가게 되는 곳이었어요”

Q. 행사 전에는 산업단지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A. 산업단지는 그저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의 ‘일하는 곳’, ‘일 하고 떠나는 곳’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밤 시간 산단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무서워서 잘 안 가게 되죠.

Q. ‘이건 진짜 산업단지 현장의 문제다’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이였습니까?

A.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난 저녁의 산단이에요. 워낙 어둡고 인적도 드물어서 산단 인근을 지날 때면 무서운 적도 있거든요. 24시간 공장은 돌아가지만 그 주변은 빛이 없는 밤거리가 됩니다.

“생각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Q. 해커톤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활동 중에 바뀐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왜 바뀌게 되었나요?

A. 처음에는 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저 ‘무서움’이었다면, 해커톤 이후 산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본인의 의견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 집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빠이며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팀 눈을 피해 몰래몰래
총총 뛰어갔죠”

Q. 1박 2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A. 아무래도 마지막 순서인 발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의 멋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박또박 스피치를 거듭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했더랬죠^^

아! 그 전에 다른 팀의 눈을 피해서 몰래 몰래 총총 뛰어가 퍼실리테이터 교수님 룸에서 새벽까지 PT 준비를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현실적인 게 선정이 안 됐어요
— 솔직한 아쉬움”**

Q. 가장 공감하신 아이디어는 무엇이었고,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A. 저는 사실 저희 8팀 씨-브릿지 의견이 가장 공감이 되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집중했고, 적은 예산으로도 변화가 클 것 같았거든요. 어두컴컴한 산단에 런닝을 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기면 울퉁불퉁한 길도 개선이 되고, 러너들이 산단 보안관이 되어 안전하고 생기 넘치는 산단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러너들이 신나게 산단을 뛰어볼 수 있는 행사요! 마라톤 행사도 좋고요, 산단의 울퉁불퉁한 길을 개선하고, 코스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주말에 뿔뿔히 뿔 산단에서 마라톤 행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선정작들은 현실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선정 되었던 거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현실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텐데... 저희가 제안한 것, 그리고 다른 조들이 제안한 것들이 합쳐진다면 완성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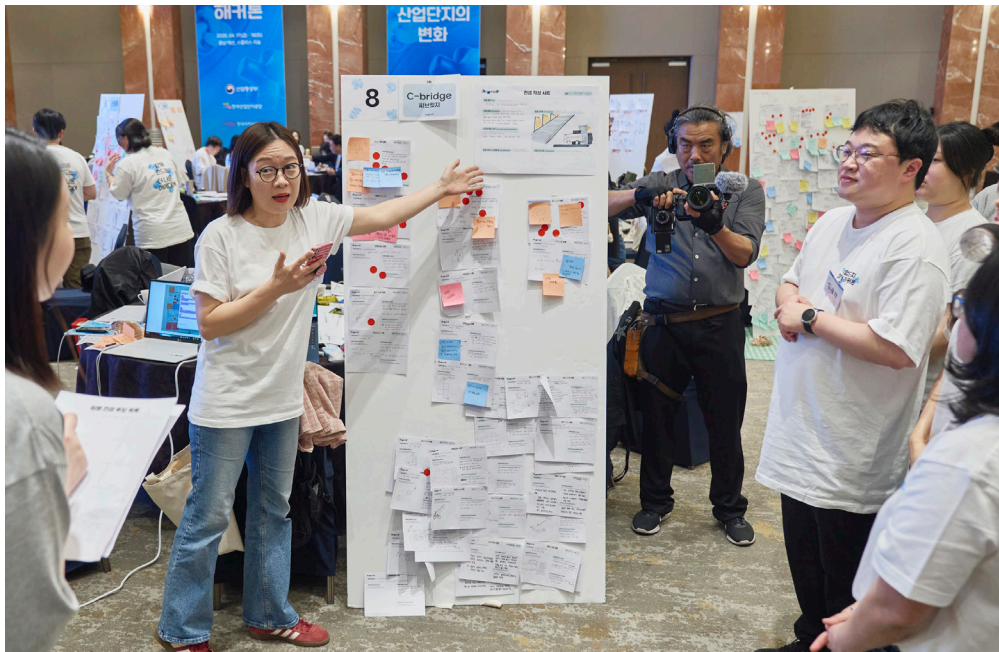
**“서비스디자인이 사람을 머물게
했습니다”**

Q. 서비스디자인 방식이 일반 회의나 일반적인 워크숍과 다르게 느껴진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 사실 이번 해커톤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 일반적인 회의는 지루한 분위기 때문인지 아이디어를 쉽게 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디자인 방식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편안했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느낌이라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빠른 시간에 친해지고 뽕뽕 뭉치게 만드는... 그래서 원팀이 되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서비스디자인이 사람을 머물게
했습니다”**

Q. 이 해커톤 이후 산업단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며 — 머무는 산단이 꿈꾸는 산단

그녀는 밤의 산단이 무서웠다. 산단 옆에 살면서도 잘 안 가게 되는 곳이었다. 그런 그녀가 1박 2일을 산단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 낯선 사람들과 하나가 됐고 은하수 길을 이야기했다. 저질 체력을 걱정했던 사람이, 몰래몰래 총총 뛰어다니며 발표를 준비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사람이 머무는 산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시브릿지의 은하수 로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안심 버스도 아직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상은 새벽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 위에, 무서웠던 곳에서 살고 싶은 곳을 꿈꿔왔던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60년 동안 설게도 바깥에 있던 것들 — 퇴근 후의 시간, 골목의 불빛, 머무는 사람들이 이제 정책의 언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서웠던 곳에서,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본 시간이 었다.



인터뷰
풀버전 보러가기

완주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머무는 산단이요! 일단 하고 집으로 떠나버려서 행하고, 차갑고, 무서운 산단이 아니라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가 감도는 사람이 머무는 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이런 자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결국 실행이겠죠. 그러자면 중앙부처와 각 시군 담당자, 그리고 산단 책임자 분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해커톤을 통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행이 안된다면 그건 무용지물 일테니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정책이 되고, 산단이 변화된다면 이런 자리가 매 회 계속될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각 부처 간의 칸막이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TFT를 꾸려서라도 누구의 실적이 아닌 하나의 결과를 위해 똘똘 뭉쳐서 진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